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61>

JCCT 2023-11-20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성취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areer Maturity

문은조*, 오지원** 김용석***, 박정희****

Eun-Jo Monn*, Ji-Won O** , Young Seok Kim*** Jung Hee Park****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C도 소재 대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전공선택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는 전공선택 개인적동기($r=.417, p=.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공선택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은 전공선택 개인적 동기, 경제활동, 전공계열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24%이었다. 따라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공선택시 개인적동기가 중요한 만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이나 미래 직장체험등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전공선택시 개인적 동기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전공선택동기,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maturity,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 maturity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career matur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99 university students in C cit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ocial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maturity, career maturi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sonal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r=.417, p=.00$) 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ocial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 maturity were personal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economic activity, and major depart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24%. Therefore, it seems that university-level support is needed to enable student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in fields related to their majors. Since personal motivation is important in major selection, we should focus on increasing personal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by provid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such as career experience and future work experience.

Key words : Major Choice Motivation,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Career Maturity

*준회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제1저자)
**준회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참여저자)
***정회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jhpug@Konyang.ac.kr
Dept. of Paramedicine, Konyang Univ, Korea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높은 교육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OECD 평균 대학 진학률과 비교하면 대학 진학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 이렇듯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대체적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전공선택은 인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 중요한 선택 중 하나로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1]. 전공을 선택시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흥미나 적성, 직업 가능성, 취업 전망 그리고 인기학과 등 전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자기개발 가능성, 전공분야 관심 정도는 선택 동기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 3].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인식하며 진로발달을 이룬다기 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속에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흥미나 적성 및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성적에 맞춰 합격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학과를 선택 하는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에도 적성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 전망에 따른 진로 불안 등의 이유로 전공학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계획되지 않는 군입대나 예기치 않은 휴학을 통해 진로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4]. 이렇듯 많은 학생이 전공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취업 포털 사람인(2014)의 대학 전공 선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2.7%가 전공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후회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또는 '적성과 맞지 않아서'라고 답하였으며,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응답은 59.3%의 비율을 보였다 [1].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학생활의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곧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5]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6] 전공선택시 지각된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학업이나 대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또한 전공선택에 따른 전공 적합성은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8]. 학업성취도는 대학생활에서의 충실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점과 직결되므로 영향력이 큰 부분이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취업전선과도 연관되어 있어 앞으로의 진로에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9]. 이렇듯 대학에서의 전공선택 동기와 진로성숙도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학업성취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개인 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자라온 내적 환경, 사회문화적인 특성, 직업정보와 인식 수준 정도등이다 [10]. 따라서 대학생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의 진로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 지금까지 전공선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학과 및 특정계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를 확인하고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를 확인하고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를 파악한다.

셋째, 전공선택동기(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이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지의 URL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임의 표집으로 실시되었으며 본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확인 후 설문지의 수신을 동의한 대상자에게 URL을 발송하였다. 설문에 참여하기 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설문참여의 자율성과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설명문을 확인하고 자의적으로 설문에 동의하고 참여하여 수거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중간수준의 효과 크기(r) .15로 적용한 결과 172명이 적절하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00명에게 설문지를 전송하였으며 완전하게 회수된 199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는 정보연 [12]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하여[13] 하위영역인 개인적 동기 3문항, 사회적동기 4문항 총 7문항이며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연[12]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개인적동기 .76 사회적동기 .5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인적동기 .85 사회적동기 .53이었다.

2.3.2 학업성취도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4]를 바탕으로 대학생이 설문지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학점 평균을 학업성취도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3.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검사를 위해 사용된 도구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기학[15]과 정희영[16]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김정현[17]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26문항으로 결정성 6문항, 목적성 7문항, 준비성 5문항, 독립성 4문항, 확신성 4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Likert 법 5단계 평점척도로 '전혀 그렇지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김정현[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7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개인적동기,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를 시행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73명(36.7%), 여자 126명(63.3%)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21-22세 108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이상이 64명(32.2%), 19-20세가 27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저학년 146명(73.4%), 고학년 53명(26.6%)로 저학년이 더 많았다. 전공계열은 보건계열 110명(55.3%), 비보건계열 89명(44.7%)로 보건계열이 더 많았다, 경제활동 유무는 예 96명(48.2%), 아니오 103명(51.8%)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

생이 더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특성	구분	n(%)
성별	남학생	73(36.7)
	여학생	126(63.3)
나이	19-20	27(13.6)
	21-22	108(51.4)
	23≤	64(32.2)
학년	저학년	146(73.4)
	고학년	53(26.6)
전공계열	보건계열	110(55.3)
	비보건	89(44.7)
경제활동	예	96(48.2)
	아니오	103(51.8)

3.2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전공선택 개인적동기 평균은 3.89±1.00(5점 만점)이었고, 전공선택 사회적동기 평균은 2.61±0.76(5점 만점), 학업성취도 평균은 3.94±3.53, 진로성숙도 평균은 3.44±0.42 이었다.

표 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변수	평균±표준편차
개인적동기	3.89±1.00
사회적동기	2.61±0.76
학업성취도	3.68±.53
진로성숙도	3.44±0.42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

Table 3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구분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성별	남학생	3.90±1.03	0.18(.94)	2.62±0.84	0.12(.11)	3.57±.59	-2.27(.024)	3.4779±0.39	0.75(.79)
	여학생	3.88±0.98		2.61±0.71		3.75±.48		3.4310±0.43	
나이	19-20 ^a	4.67±0.48	11.04(.00) a>c	2.33±0.52	3.66(.02) a<b	3.85±.50	2.204(.11)	3.55±0.35	1.32(.27)
	21-22 ^b	3.71±1.03		2.73±0.74		3.62±.58		3.44±0.42	
	23≤ ^c	3.84±0.95		2.53±.84		3.72±.44		3.39±0.43	
학년	저학년	3.91±1.02	0.62(.41)	2.67±.77	1.63(.67)	3.67±.58	-.425(.61)	3.47±0.42	1.23(.58)
	고학년	3.81±0.93		2.47±.72		3.71±0.36		3.38±0.41	
전공계열	보건계열	4.14±0.83	4.09(.00)	2.72±0.74	2.16(.32)	3.74±0.40	-0.77(.89)	3.53±0.39	3.42(.58)
	비보건	3.58±1.09		2.48±0.79		3.61±.66		3.33±0.43	
경제활동	예	3.93±0.97	0.63(.63)	2.59±0.70	-0.34(.33)	3.73±.45	-0.79(.19)	3.5509±0.37	3.39(.23)
	아니오	3.84±1.02		2.63±0.82		3.63±.59		3.35±0.44	

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개인적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개인적동기는 나이(F=11.04, $p<.00$), 전공계열($t=4.09$, $p<.002$),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학년, 경제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선택 사회적동기는 나이(F=3.66, $p=.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전공계열, 경제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성취도는 성별($t=-2.27$, $p=.024$)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이, 학년, 전공계열, 경제활동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진로성숙도는 성별, 나이, 학년, 전공계열, 경제활동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3.4 전공선택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전공선택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는 전공선택 개인적동기($r=.417$, $p<.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공선택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4).

표 4. 전공선택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변수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 성취도	진로 성숙도
	r(p)	r(p)	r(p)	r(p)
개인적 동기	1			
사회적 동기	-.079 (.26)	1		
학업 성취도	.236** (.00)	-.073 (.30)	1	
진로 성숙도	.417** (.00)	.091 (.20)	.031 (.66)	1

** $p<.01$

3.5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연구변수들이 다중공선성을 검토

한 결과 공차한계는 .588~.982,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1.018~1.702로 기준치인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nbin-Watson은 1.989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오차항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상관관계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선택 개인적동기와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전공선택 개인적동기($\beta=.353$, $p<.001$), 경제활동 유무($\beta=.224$, $p<.001$), 전공계열 ($\beta=.141$, $p=.032$)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0.621$, $p<.001$),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표 5)

표 5.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affe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변수	B	S.E	β	t	p
(상수)	3.09	.45		6.67	<.001
성별 -남학생 (ref. 여학생)	.07	.05	.08	1.28	.199
age	-.01	.02	-.06	-.80	.422
학년_고학년 (ref. 저학년)	-.01	.07	-.01	-.22	.821
전공계열_보건 (ref. 비보건)	.12	.05	.14	2.16	.031
경제활동_유 (ref. 무)	.18	.05	.22	3.54	<.001
개인적동기	.14	.02	.35	5.33	<.001

F= 10.621, $p<.001$, $R^2=.249$, $adjR^2=.226$,

IV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전공선택 개인적동기는 평균평점

3.89점 사회적동기는 평균평점 2.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2] 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진로성숙도는 3.44점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8]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학업성취도는 이는 평균평점 3.68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9]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 개인적 동기, 사회적동기,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전공선택 개인적 동기는 나이가 19-20세 대학생이 21-22세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전공선택 사회적동기는 나이가 21-22세인 대학생이 19-20세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개인적동기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동기가 우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 계열이 비보건계열 대학생보다 전공선택 개인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Jeong [12]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단순히 보건과 비보건계열로 나누기 보다는 계열을 세분화하여 전공계열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17]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남학생, 4학년, 교육계열이 진로성숙도가 높게 확인되어 향후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진로성숙도는 전공선택 개인적동기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동기가 높은 학생은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적성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13]. 또한 Lee[2], Kang [20]의 연구에서는 개인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사회적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진로성숙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성숙도에 개인적동기가 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특성상 입시위주 교육 속에서 전공선택시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즉 개인적동기가 강한 학생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성적 또는 취

업가능성을 중점으로 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개인적동기로 높은 경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진로선택을 할 것이라 예상되며, 구체적인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과정을 이행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성적이나 취업 가능성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진로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목표에 혼란을 겪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21]자신의 진로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Son [22]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였는데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결정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Park [23]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보다는 자신이 인지하는 학습능력에 대한 긍정적 자기조절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성숙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은 전공선택 개인적 동기, 경제활동, 전공계열 순이었다. 다시말해 보건계열 대학생이,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전공선택 개인적 동기가 높은 대학생이 진로성숙도가 증가하였으며 설명력은 24%이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이 직업선택 개인적 동기가 비보건계열 대학생보다 높았으며 진로성숙도와 개인적동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결과라 여겨진다. 경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지는데 이는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4]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직장체험은 진로준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제활동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경제활동은 진로성숙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전공분야의 진로체험을 늘려 진로 준비활동 제고에 부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 학생을 위해 전공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공선택시 개인적동기가 중

요한 만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이나 미래 직장체험등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전공선택시 개인적 동기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D. J. kim,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of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South Korea 2020
- [2] M. A. Lee, "A Study on the Process of Exploring and Deciding College Majors in the Division System as Academic Organization",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Evaluation, Vol.20 No.3, PP.81-101, 2007
- [3] S. H. Jung, "The Association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air: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6 No. 2, pp. 133-140, February 2021
- [4] G. Y. Lee,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2011
- [5] M. R. Lim, Y. M. Kim, "A Study on the for College Choice from Tourism -Related Majors at Vocation School that Affects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Loyalty", Korean Society for Tourism Research, Vol.27 No.2, PP. 361-379, 2013
- [6] H. S. Kim, O. J. Kim, M. H. Kang, C. J. Yoon, "Differences i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eaningfulness in Life Among Regional Private University Students", Sogang University Student Life Counseling Institute, Vol.31 No.2, PP.267-282, 2010
- [7] G. H. Lee, J. M. Kwon, "The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to choose their major and college lif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12 No.1, PP. 95-112, July 1996
- [8] Y. H. Cho, J. C. Jung, M. Moon, "The Effects Person-University Fit(PUF), Person-Major Fit(PMF) on Employability and Educational Achievement : The Role of Learning Flow as A Mediator, Mentoring as A Moderator",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6 No.3, PP. 749-780, 2013
- [9] K. A.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Home-based Co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2, pp. 337-345, 2021
- [10] H. S. Kim, H. M. Bang,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in the Relationship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9, PP.375-397, 2014
- [11] Y. K. Kim, J. H. Lee, "The Effect of Grit's Sub-Factors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Psychology and Type Studies*, Vol.23 No.1, PP.23-37, 2022
- [12] B. Y. Jeong "The Effects do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 on Vocation Choic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South Korea* 2010.
- [13] M. H. Lee, A. Y. Ah, "Mediating Effects of Majors' Satisfaction on Majors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Choice Facto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5 No. 2, PP.437-453, 2017
- [14] S. Y. Kim, "The Effect of Perceiving a Calling on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Meanings in Life, Academic Dedic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 9, No. 1, PP. 137-154, 2017
- [15] G. H. Lee, J. C. Han, "A tool for validating a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8, PP.219-255, 1997
- [16] H. Y. Jeong, O. L. Park,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 Beauty and Art*, Vol. 10, No. 1, PP.35-49, 2009
- [17] J. H. K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 Career Maturity,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Stress Induced from Seeking Job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South Korea 2015*
- [18] J. C. Yoon, S. H. Park,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8, PP. 687-696, August 2017
- [19] J. H. Park, B. G. Yoon, “The effect of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9., PP. 257-264, 2020
- [20] K. Y. Kang, “Analysi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factor Difference based on University Freshmen’s Major selection reason”, *Korea Ins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6 No.3, PP.201-209, 2018
- [21] B. R. Youn, H. W. Jang, “Temporal aspects and determinants of college student depar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5*
- [22] M. K. Son,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 of taegwando on adaptation of college life and the attitude toward course deci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3*
- [23] E. K. Park,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General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South Korea 2015*
- [24] S. R. Lee, “Local University Students’ Work Experience during the University Years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Job Preparation Effect ”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5 No. 1, PP.5-39, 2004